

전남일보 선정 'KIA타이거즈·광주FC 2023 5대 뉴스'

2023년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와 프로축구 광주FC는 희비가 엇갈렸다. KIA타이거즈는 6위에 그치며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한 반면 광주FC는 3위에 오른데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 진출에 성공했다. 전남일보는 올 한 해 스포츠 팬들을 웃고 울렸던 KIA타이거즈와 광주FC의 5대 뉴스를 간추렸다.

‘악’ 소리로 끝난 시즌… 끝내 가을야구 탈락



1 나성범부터 김도영까지 ‘부상 악령’

KIA 타이거즈는 2023시즌 내내 부상 악령에 시달렸다. 장현식이 지난 시즌 종료 후 수술대에 오르며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 합류가 무산됐고, 나성범은 지난 3월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출전 중 종아리 부상으로 개막 엔트리 승선이 불발됐다.

김도영은 개막 시리즈에서 발가락 골절로 전반기를 날렸고 여름에는 한승택부터 김선빈, 변우혁, 황대인까지 크고 작은 부상이 이어졌다. 가을야구 승부처에서도 이의리와 마리오 산체스의 이탈을 시작으로 박찬호와 나성범이 시즌 아웃됐다.

최원준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훈련 중 타구에 맞아 종아리를 다쳤고, 김도영은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2023 결승전에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하다 손가락을 다치면서 대표팀 잔혹사까지 더해졌다.

2 메디나→파노니 ‘외인 투수 실패’

KIA타이거즈의 2023시즌 외인 투수 농사는 실패했다. ‘원투펀치’로 새로 영입한 아도니스 메디나가 12경기에서 2승 6패, 평균자책점 6.05로 극심한 부진에 빠졌고 손 앤더슨은 14경기에서 4승 7패, 평균자책점 3.76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 후반기를 준비하며 외인 투수진을 마리오 산체스와 토마스 파노니로 개편하는 강수를 뒀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산체스는 12경기(11선발·1구원)에서 4

승 4패, 평균자책점 5.94에 그쳤고 파노니 역시 16경기(15선발·1구원)에서 6승 3패, 평균자책점 4.26을 기록하며 재계약이 불발됐다. 외인 원투펀치가 모두 실패하면서 선발진은 물론 불펜진에도 연쇄 붕괴 효과를 일으켰다.

김종국 감독은 시즌 종료 후 서재응, 이동걸 투수 코치와 정명원 재활군 코치의 재계약을 포기했고 정재훈, 이동걸 투수 코치와 서덕원 재활군 코치를 영입했다. 또 나카무라 타케시 배터리 코치를 복귀시켰다.

3 ‘영구결번 도전’ 양현종 대기록

‘살아있는 전설’ 양현종이 2023시즌에도 대기록을 써 내려가며 영구결번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양현종은 개막 직후 KBO리그 역대 최연소 통산 160승을 시작으로 2200이닝 투구(4호)와 다승 단독 2위, 1900탈삼진(2호) 등 굵직한 기록을 새로 썼다.

또 KBO리그 통산 164선발승을 챙기면서 역대 최다 선발승을 기록한 투수로 우뚝 섰고, 9시즌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3호)과 2300이닝 투구(3호), 역대 최초 9시즌 연속 170이닝 투구 등을 달성했다. 양현종은 올해 9승 11패를 기록하며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리 달성에는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수많은 개인 기록이 있지만 최종 목표인 영구결번을 향해 더 열심히 하겠다. 야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뿐이다”며 베테랑의 품격을 과시했다.

4 김도영 vs 문동주 ‘大戰’ 성사



KIA타이거즈 외야수 나성범이 지난 9월1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시즌 14차전 2회말 자신의 파울 타구에 맞은 뒤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KIA타이거즈의 선택으로 운명이 엇갈렸던 ‘광주의 아들’ 김도영과 문동주의 맞대결이 두 시즌 만에 성사됐다. 지난해에

는 부진과 부상 등으로 둘의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올해 후반기에는 나란히 투타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기대를 모았

다. 김도영과 문동주의 첫 맞대결은 지난 8월6일 광주에서 이뤄졌다. 김도영이 3번 타자 겸 3루수로 나섰고, 문동주가 한화 이글스의 선발 투수로 등판했다. 김도영은 1회말 유격수 라인드라이브, 4회말 우익수 플라이, 6회말 볼넷을 기록하며 문동주와 백중세를 이뤘다.

이들의 두 번째 만남은 8월27일 광주에서 성사됐다. 김도영이 2번 타자 겸 3루수로 나섰고, 우천 취소로 로테이션이 밀린 문동주가 선발 등판했다. 김도영은 1회말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으나 4회말 볼넷을 골라 출루한 뒤 6회말에는 우전안타에 결승 득점까지 올리며 미소 지었다.

5 야속했던 ‘비 내리는 호남선’

2023시즌 KIA타이거즈는 비에 시달렸다. 144경기 중 무려 24차례나 우천 취소됐으니 8회면 울려 퍼지는 응원가 ‘남행열차’의 가사처럼 빗물이 흐르고 눈물도 흐를 지경이었다.

3경기 연속 우천 취소, 4경기 연속 우천 취소 등 장기간 휴식이 생기면서 선수단의 경기 감각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1주일 간의 울스타 휴식이 직후에도 한 경기를 치른 뒤 다시 두 경기가 내리 취소되면서 흐름이 끊겼다.

잦은 취소로 시즌 막바지 부담도 늘었다. 올해는 3위부터 6위까지 순위 경쟁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이어졌는데 KIA는 10개 구단 중 우천 취소가 최다를 기록하면서 월요일 경기 3회와 더블헤더 3회 등 가장 빡빡한 추가 편성 일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 ‘거센 축구 돌풍’… 시민 열기도 ‘후끈’



1 강팀 기를 다진 ‘이정호 리더십’

지난해 광주FC 지휘봉을 잡자마자 K리그2 역대 최단기간 우승과 역대 최다 승리(25승), 홈경기 전 구단 상대 승리 등 역대급 시즌을 완성했던 이정호 감독은 1부리그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광주FC는 2023시즌 구단 역사상 1부리그 최다 승리(16승·중전 2016년 11승)와 승점(59점·중전 2016년 47점)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또 창단 후 처음으로 1부리그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챙겼다.

광주FC의 돌풍에는 이정호 감독의 리더십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감독은 엄지성과 정호연, 이희균, 허을 등 유스 출신 선수들은 물론 이건희와 하승은, 김한길, 두현석 등 선수단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며 원석을 보석으로 변모시켰다.

2 2년 연속 돌풍…마침내 아시아로

K리그2와 K리그1을 연달아 집어삼킨 광주FC의 돌풍은 이제 아시아로 나아간다. 2024년 광주FC의 돌풍이 태풍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광주를 넘어 한국 축구의 관심사가 됐다.

광주FC는 올해 16승 11무 11패(승점 59)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K리그1 3위에게 주어지는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플레이오프 티켓 역시 거머쥐었는데 이는 창단 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광주FC는 내년 7월부터 8월까지 중립지역에서 2023 중국 슈퍼리그 2위인 산둥 타이산, 현재 진행 중인 2023~2024 태국 FA컵 우승 팀과 ACLE 진출 여부를 가린다. 단 전북현대가 올해 ACL에서 우승할 경우 광주는 자동으로 ACL2로 떨어진다.

3 줄악재에도 흔들리지 않은 ‘원 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하다’는 용비어천가 제2장처럼 광주FC는 2023시즌 잇따른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항을 이어갔다.

광주FC는 지난 5월 공격수 산드로가 국제면허증 미발급 상태에서 차량 추돌 사고를 일으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끝에 계약을 해지했다. 8월에는 수비수 김재봉이 제3자를 통해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것이 적발되며 방출 조치했다.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38라운드 홈경기에서 0-0으로 비기며 3위로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획득한 뒤 팬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또 김경민과 이민기, 티모, 안영규, 엄지성, 이은범, 김한길, 아사니, 이희균, 아론 등 주축 선수들이 크고 작은 줄부상에 시달렸지만 모든 선수가 어떤 포지션에 투입되든 제 몫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악재를 이겨냈다.

4 선수단 인프라 개선 촉구…市 화답

광주FC는 열악한 훈련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주축구센터는 배수 불량 등 하자로 잔디가 괴사했고, 선수단에 부상은 물론 눈병까지 유행했다. 광주월

드컵경기장과 광주축구전용구장의 경우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이 제한됐고 물을 분사하지 않아 부상 위험이 도사렸다.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을 더 성장시키고 싶는데 훈련 환경이 안된다. AFC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도 걱정이다.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호연 역시 “운동장이 많이 열악하다. 그라운드가 말라 있어 위험하다. 조금만 도와준다면 더 발전하고 높은 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구단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강기정 시장은 화끈한 선물을 전했다. 내년 5~6월까지 광주축구센터를 천연 잔디 2면으로 전면 재조성하고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 광주축구센터와 광주축구전용구장 위수탁을 광주 구단에 맡겨 원활한 훈련이 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5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순민

미드필더 이순민의 존재감은 단연 돋보였다. 이정호 감독의 지도 아래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선수라는 평가다.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등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순민은 공수를 가리지 않는 활발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빌드업과 드리블, 타압박 등에 장점을 보이는 자원으로 올해 주포지션인 중앙 미드필더는 물론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까지 오가며 광주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K리그2 베스트 11에 이어 올해 K리그1 베스트 11을 연속 수상하며 가치를 높였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지난 8월 최초 발탁 이후 불박이로 자리 잡으며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다.

한규빈 기자